



제주 10가구 중 3가구 “나 혼자 산다”

통계청 ‘제주 1인가구 현황·특성변화’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7만3250가구... 18년새 약 3배 늘어
노형·연동·아라동 급증... 1인가구 71%는 무주택

제주지역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도심인 연동·노형동은 물론 최근 대규모 택지가 들어선 아라지구와 삼화지구의 집중현상도 심화됐다. 반면 원도심의 1인가구는 감소세를 보이며 대조적이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제주지역 1인가구 현황 및 특성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가구는 7만3250가구로 18년 전인 2000년의 2만6152가구에 견줘 2.8배 증가했다. 그 비중은 29.4%

로 전국평균 29.3%와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 남자(3만7607가구) 1인가구가 여자(3만5643가구)보다 많다.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도 2000년 1만4522가구에서 지난해 1만6022가구로 5570가구(53.3%) 늘었다. 애월읍(969가구)·한림읍(808가구)·이도2동(732가구)에서 그 수가 많다. 인구비중 면에서는 한경면(44.2%)·추자면(40.1%)·남원읍(35.0%) 등의 순이다.

2017년 1인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8.8%이며 무주택 1인가구는 71.2%에 달한다. 10명중 7명꼴 이상이 아

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해 일반주택 등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지역별 1인가구 분포도는 도심 공동화현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주시 신도시와 신규 대단위 택지구에는 1인가구가 늘고 있지만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가구 수는 구성비에서 되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과 2018년 비교, 제주시의 1인가구 구성비는 지역별로 노형동(4.3%)·아라동(3.4%)·이도2동(3.3%)·삼양동(1.6%)·화북동(0.8%) 등은 늘었지만 건입동(-2.1%)·삼도2동(-1.2%)·용담1·2동 및 일도1·2동(각각 -0.9%) 등 원도심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대천(1.4%)·대륜(0.6%)·충문(0.5%)·동홍동(0.4%)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는 남자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늘었고, 여자는 20-59세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가구 고용률은 73.2%로 2-3위인 세종(67.5%)과 충남(66.3%)을 앞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편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 제주지역의 1인가구는 2020년 7만5831가구에서 2045년에는 12만3916가구로 63.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인가구 비중이 34.5%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6%에서 지난해 29.4%로 12.8%p 늘었다. 평균 가구원 수도 3.2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0.7명이 감소했다. 반면 4인가구 비중은 2000년 27.1%에서 지난해 15.6%로 줄었다.

백금탁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제주사람 노린다

제주, 1만명당 17건 발생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아 지난해 피해 규모 69억원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중 인구당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만명당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제주도(17.0건)이다. 이어 이어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의 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

(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인천(261억원) 순으로 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6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제주 지역에서는 3주 사이 은행원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3건이 연이어 발생해 6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금감원은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확대 공유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억대 불법 사설경마 도박 일당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54)씨와 이모(55)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3일 스마트폰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등 같은해 10월 20일까지 약 3억1500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고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 20일부터 같은해 10월 25일까지 1억5410만원 상당을, 이씨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그해 10월 20일까지 1억1352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도박에 사용한 돈이 적지 않고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30대 공무원 출근길 참변 SUV 차량에 치여 숨져

13일 오전 6시32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월리 도개비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A(31)씨가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

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서귀포시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이날 오전 출근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아라119센터 14일 개소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가 14일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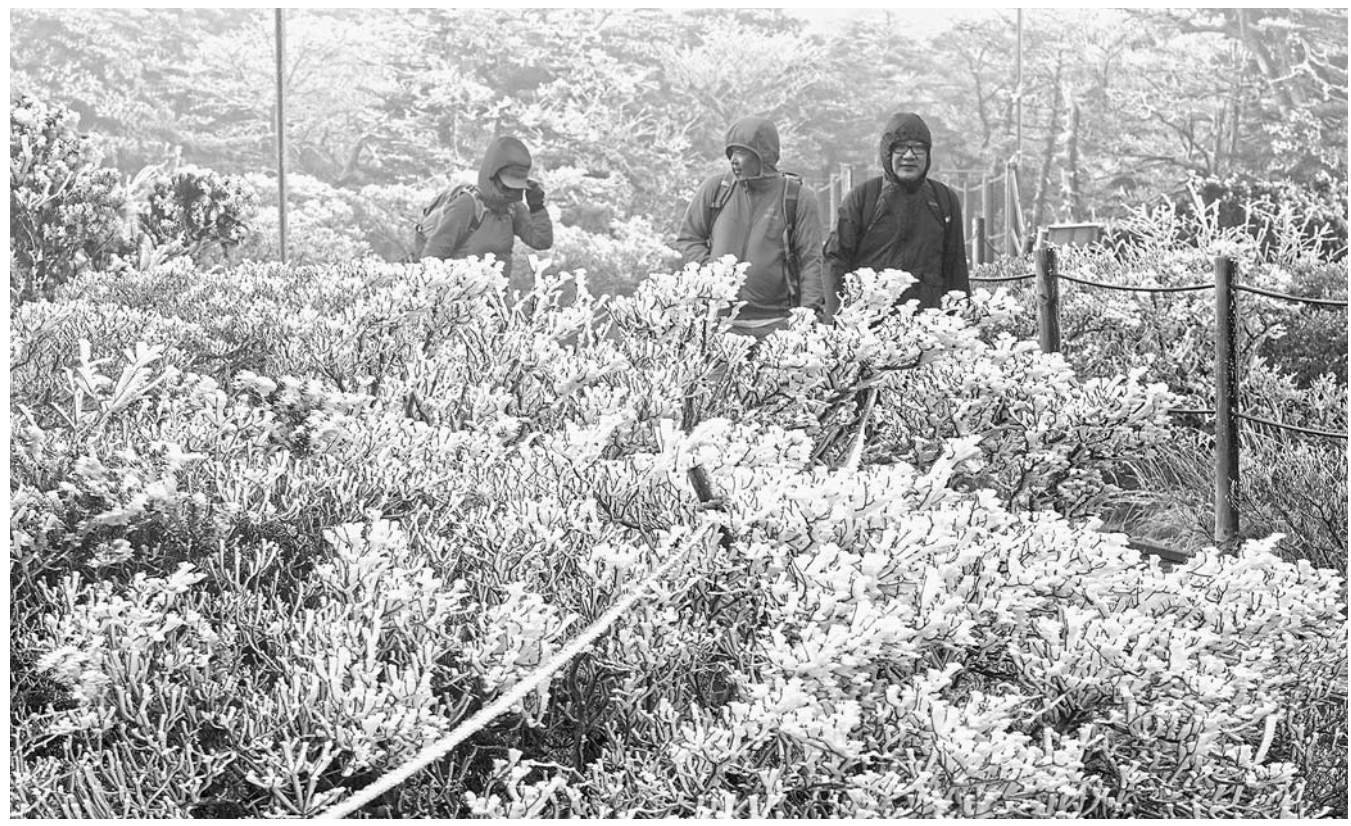
제주소방서는 이날 제주시 영평동 아라119센터에서 고대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소방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10년 전 인구 1만명에 불과했던 아라동 지역은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3만3000명이 넘는 도심지로 급성장해 소방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아라119센터는 지상 3층 규모(부지 2113㎡·연면적 990㎡)로 건립돼 직원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 또 정월 25명의 소방인력과 소방차 3대가 배치됐다.

김현석기자



한라산 사고대 천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14일 한라산 정상 부근에 사고대가 피어 등반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상국기자

“관급공사 체불방지 조례 제정 환영한다”

민중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민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조례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또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시행 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도정은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제주시·해경, 주요 항포구 합동 점검

최근 5년 해양사고 419건

제주시는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내달 6일까지 대형어선 밀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출어선 증가와

연근해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항포구 정박·조업 중 난방용 전열제품 안전사용 지도, 조업 전 선체 정비 실시, 조업 중 구명동의 상시 착용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근

해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근해어선의 365일 든든한 조업·안심조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시 선적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총 419건으로 연 평균 8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사고는 7건으로 약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제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영무독)·천혜(영무독)
한라봉·맘나는봉·황금향
미니향·아마나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라실생·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이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